Nr. 2024 - 01-02

설

Licht und Salz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설

편집부

2023년을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뮌헨 본당과 공소 여러분들 모두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말과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후자의 새해 인사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전자의 인사말은 수동적인 태도를 뜻하지만 후자의 인사말은 능동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복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민수 6,24-26). 이 성경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1월 25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미사와 식사 1

11월 25일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미사와 식사 2

설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좋은 글 / 정진만 안젤로 신부님

-

첫 영성체 소감 / 차혜린 안젤라

2024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설 (Neujahr)

3,4월 세례 (Taufe)

5,6월 승천 (Himmelfahrt)

7,8월 피정 (Exerzitien)

9,10월 수확 (Ernte)

11,12월 이웃 (Nachbar)

12월 9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와 성탄잔치 1

12월 9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미사와 성탄잔치 2

사제와 함께

주님공현 묵상과 2024년 사목지침

허광철 요셉 신부

새해의 소망

화가인 한 스승에게 누군가 물었다. 당신은 왜 그림을 그리십니까?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빤히 쳐다보며 답하길, "그림을 그리는 일이 이미 내 삶이 되어 버렸는데... 제게 왜 숨을 쉬고 사냐고 묻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해 본다. 당신은 왜 신부로 사냐고, 당신은 왜 성당에 다니냐고, 당신은 왜 이 봉사를, 이 일을 하고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어떤 이유나 목적도 아닌, 그저 숨쉬는 일처럼, 삶이요 일상이 되어버렸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 삶과 일상이 기도요, 신앙심의 발원이길... 소망해 본다.

주님공현대축일 묵상 마태 2,1-12 : 하느님의 방식, 하느님의 자리

새해 첫 주일인 에피파니아(공현) 축일은 성탄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신' 날, 즉 세상이 드디어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복음은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찾고 알아보고 경배해야 하는지 초대한다.

"그분의 별"(2,2)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별'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박박사들은 물론 이고 헤로데 임금 뿐 아니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 누구도 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의 방식'대로 그 별을 바라보지 않는 한, 똑같은 별을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별바라기를 '하느님 신앙하기'라 할 때, 하느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기쁨은 커녕 결국 거짓경배로 의심만 늘어갈 것입니다.

복음에서 경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가서 잘 알아보시오"하며 하느님의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짓경배를 약속합니다(8절). 다른 한쪽은 하느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별을 좇아 마침내 기뻐하며 땅에 엎드려 정성껏 경배합니다(9절).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소위 악인이요, 거짓 경배의 대명사인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의 여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로데 자신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4절) 모아놓고 별에 대해 알아보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미카 예언자의 말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향하도록 동방박사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하느님의 방식은 악인이나 원수를 통해서도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한 아기'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귀결되는 십자가의 방

식이었습니다. 헤로데와 같은 사람, 또는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더 이상 분노와 절망으로 '믿음과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방식', '하느님의 자리'에 희망을 걸고 묵묵히 '그분의 별'을 좇아 "사랑으로 인내하며"(갈라 5,6)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해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2024년 사목지침

우리공동체는 뭔헨 본당과 세 개의 공동체(레겐스부즉, 에열랑엔-뉘른베즉, 뷔르츠부즉)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와 연결된 바이에른 여러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삶과 신앙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에 매진합시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영성생활과 공동체생활로 이루어집니다. 영성생활의 중심인 미사와 고해성사에 언제나 중심을 두며, 성경읽기와 기본적인 기도생활(화살기도, 묵주기도 등)을 통해 매일을 성화합시다. 아울러 공동체 생활 역시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2. 가정 성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첫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매일 또는 기회가 닿는 대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거나 가정기도를 하며 거룩한 성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3. 신앙의 열매는 사랑실천입니다. 사랑실천과 생명수호실천에 매진하며 일상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선교에 대한 열정 역시 사랑실천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공동체 나눔과 이웃을 위한 기도와 희생에 더욱 매진합시다.

2024년 올 한해도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본당신부 허광철 요셉-

12월 10일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 대림 강론

살아가는 이야기

세 나무

전영민 수산나

언덕위에 어린 세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들은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첫번째 나무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보석 같다는 생각을 한다. " 큰 나무가 되어 가구공이 나를 훌륭한 보물상자로 만들면 내 안에 귀한 보석들을 간직하리라."

두번째 나무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굽이굽이 숲속을 돌아 바다로 흘러가는것을 보고 이 담에 큰 배가 되어 왕을 모시고 유람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번째 나무는 두 나무들 과는 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언덕위에서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것을 보고 "큰 나무가 되어도 이곳에 그대로 머물고싶다.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고 하늘을 바라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 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째 나무의 꿈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그 동안 비와 바람과 태양빛으로 그 어린 나무들은 큰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 세 나무들의 꿈은 이루어 졌을까?

어느날, 벌목꾼 세 사람이 그 언덕의 나무들을 올려다보니 그들이 찾고있는 쓸모있는 나무들 이었다. 한 벌목꾼이 큰 톱으로 첫번째 나무를 잘라내었다. 첫번 째 나무는 생각하길 '난 곧 예쁜 보물상자로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귀한 보석들을 간직할 수 있겠지' 하며 아주 즐거워했다.

두번 째 나무도 그렇게 벌목꾼에게 잘라졌다. '아 드디어 내가 큰 배로 만들어져 왕을 모시는 유람선이 되겠구나.'

세번째 나무는 벌목꾼에게 잘려질까봐 두려워졌다. 왜냐면, 그 나무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나무의 실망은 너무나 컸다 귀한 보석을 간직할 보물상자가 될 줄 알았는데 보잘것 없는 구유간의 작은 여물통이 되었던것이다.

두번째 나무에게도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왕을 모시는 큰 배가 될 줄 알았는데 약하고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되었던 것이다.

세번 째 나무도 여지없이 잘라져서 나무창고로 옮겨지고 말았다. 많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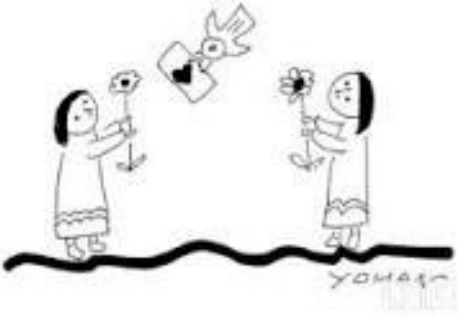
이 흘렀고 더 이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 나무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고 꿈을 이루려는 희망을 접어두려 하고 있었다.

어느날 밤, 젊은 엄마는 아기를 구유에 누이곤 아주 행복해 하였다.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누추한곳에서 아기를 낳게해서 미안하오" 마리아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 아 요셉, 이 구유가 얼마나 좋아요" 하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단번에 그 첫번째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을 간직한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두번째 나무에게도 놀랄일이 생겼다. 어느날 한 방랑자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작은 배에 올라 타는것이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는 배에 올라타자 곧 깊이 잠이 들었다. 멀리 바다위를 가는 동안 갑자기 큰 폭풍우가 오면서 그 작은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한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드디어 잠에서 깬 방랑자는 손을 뻗어 광풍을 꾸짖자 바다는 곧 조용해졌다. 그러자 그 두번째 나무 역시,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큰 왕을 모시는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다. 잊혀지고 박혀둔 나무더미에서 내려져 큰 십자가 나무가 된 세번째 나무는 너무나 놀랐던 것이다. 한 젊은 남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간을 그 십자가를 어깨에 매고 힘겹게 발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에게 야유를 퍼붓고 군인들은 매질을 하면서 참으로 끔찍해서 볼수없는 상황 이었다. 십자가에 묶인 그 사람은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여 언덕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날인 일요일 아침, 막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가진 그 셋째나무는 자신이 잊고있던 오래된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자신의 목재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는 십자가가 된 것이다.

훌륭한 보석상자가 되길 원했던 첫째 나무, 왕을 모시는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두번째 나무,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



하는 소명을 가진 세번째 나무, 이렇게 세 나무들의 꿈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 이 글은 어느 지인으로 부터 받은 책자에서 발췌하고 번역한 글 입니다 ~

우리들도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꿈이 없는 것은 목적 없는 삶이고 목적이 없으니 당연히 방향설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불안정하고 절제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의욕이 있어야만 활력이 생기고 활기찬 희망만이 취지나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재 , 지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하여 모든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싶은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 가 되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고 공정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 보겠다는 카리타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각자 사람들의 소망은 이렇듯 가지가지인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천차만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효소처럼 바글거리며 그 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보다 자주 빗나갈 때가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 없이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번쯤 꺾여도 보고 좌절도 해 보아야만이 인생의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는 탄탄한 삶의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2월 10일 공동체 총회 및 작업 1

좋은 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구세주 탄생 앞에 하느님 뜻 살핀 성모님처럼

정진만 안젤로 신부님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 '천주의 성모', 곧 '하느님의 어머니'(그리스어 '테오토코스', 라틴어 '마테르 데이')라는 칭호를 성모 마리아께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성모님을 가리키는 이 경칭(敬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신앙의 명제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곧 구원자이신 주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사건을 한 여인을 통한 하느님 아들의 탄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갈라 4,4) 이는 주님의 천사가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준 소식이며(루카 2,12),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소식입니다.(루카 2,17)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고, 천사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루카 2,18) 이 '놀람'은 '믿음'의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으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준 소식은 분명히 '신비스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기쁜 소식의 선포자, 그리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소개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줬고, 또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루카 2,20)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소식, 이어서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포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루카 2,11)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에서 태어난 아기, 마리아와 요셉 곁에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루카 2,21) 이로써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란 고을에서 마리아에게 전달한 예언(루카 1,31)이 완성됐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로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루카 1,32)이시며,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하느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임금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은 이미 구약시대에 바빌론 유배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하느님의 분노와 저주로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에서 '늘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제1독서에서 소개되는 하느님은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며, 평화와 구원을 주는 분이십니다. 사제(레위인)의 축복 양식(민수 6,22-27)에서 소개되는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상기시키시며 계약 안에 담겨 있는 약속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계약의 성실한 이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며, 동시에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느님께서는 온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화답송: 시편 67 참조)

유배의 고통에 신음하며 상실감에 빠져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라는 아기의 탄생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하느님 아들의 탄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인을 통한 출생으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신 분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느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는 주인에게 종속돼 자유가 없는 종과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으니, 이는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 분명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리아가 목자들이 알려준 것들, 곧 구세주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루카 2,19) 신비스러운 초자연적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마리아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숙고하며 이를 마음 안에 소중히 간직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 마리아, 요셉과 함께 구유에 누워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

라봅시다.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12월 10일 공동체 총회 및 작업 2

12월 16일 뷔르츠부르크 공동체 미사와 성탄잔치 2

12월 24일 미사 후 구유 조배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첫 영성체 소감

차혜린

안젤라

안녕하세요, 차혜린 안젤라입니다. 저는 이번에 뮌헨 한인 성당에서 첫영성체를 받으며 천주교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또 한 개인으로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에게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면서도, 때로는 그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천주교 가정에서 자란 저이지만, 여러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순간부터 미사에 규칙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또 첫영성체 시기까지 놓치게 되며 하느님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처음 뮌헨 한인 성당에 오게 되었을 때만 해도 익숙한 일상이면서도 낯선 존재인 성당이란 곳과 미사, 그리고 기도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미사를 드리며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 교리 수업을 들으며 종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추상적인 개념 뿐만이 아닌,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교리 시간에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성당에 오게 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의 근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저를 하느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만큼, 앞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허광철 요셉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12.17 첫 영성체 1

2023.12.17 첫 영성체 2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뷔르쯔부르그 공동체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문석영 라파엘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